

본 작품은 2018년도 한국문학번역원 한-터키 번역 워크숍 수강생 모집용 샘플
번역을 위해 발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김애란 님

불법 유통 및 복제를 엄격히 금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7



한국문학번역원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노량진역 주위에 안개가 자욱했다. 두 사람은 페인트칠 벗겨진 어둡한 통로를 지나 육교에 올랐다. 다리 아래로 수산시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다닥다닥 붙은 상점 위에 균등한 크기로 늘어선 빗덩이가 휘영청했다. 도화도, 이수도 노량진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건만 수산시장에 온 건 처음이었다. 도화는 진작 가라앉은 기분과 별개로 낯설고 떠들썩한 풍경에 잠시 마음을 뺏겼다. 손님 눈높이에 맞춰 비스듬히 세워놓은 가판을 비롯해 계단식 수조, 얼음 담긴 스티로폼 상자며 붉은 대야에 각종 어패류와 갑각류가 바글거렸다. 사방이 꿈틀대고, 펄떡대고, 부글거리는 생물로 가득했다. 온갖 생선이 힘차게 허리를 틀며 피를 뿜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그렇지만 낯설고 신기한 기분도 잠시. 이수가 벌써 몇 번째 목적지를 찾지 못해 같은 자리를 빙빙 돌아 도화는 짜증이 나고 말았다.

- 전화해봤어?

- 그게 미리 연락하고 오면 괜히 부담 줄 것 같아서.

- 그래도 이런 날엔 예약을 했어야지. 크리스마스잖아.

이수가 마지못해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곤 소심하게 연락처를 뒀진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 표정이 왜 그래?

- 어?

- 얼굴이 왜 그러냐고.

- 어. 그게 없는 번호라는데?

두 사람은 같은 자리를 두 번 더 돌았다. 표정이 이미 굳을 대로 굳은 도화의 눈치를 살피다 이수가 결국 근처 상인에게 지리를 물었다. 비닐 앞치마 차림에 고무장화를 신은 사내가 명함 권 손을 길게 뻗어 찌푸린 눈으로 약도를 살폈다.

- 아, 청해수산?

이수의 얼굴에 살짝 희망이 스쳤다.

- 여기가 거기여.

- 네?

- 이 집이 그 집이라고.

사내가 고갯짓으로 '남해수산'이라고 적힌 자기네 가게 간판을 가리켰다.

- 전에 사장님하고 아는 사이셨나?

이수가 대답 대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남해수산 업주는 자기가 얼마 전 청해수산을 인수했다고 했다. 그 집 사장이 뭐가 잘 안 풀렸는지 급히 정리하고 떠나는 분위기였다고.

- 이 집 찾은 거면 잘 찾아오셨네. 이왕 온 거 여기서 사세요. 내 잘 해드릴게.

아까부터 뭔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흥정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도화와 달리 이수는 갈등했다. 이수는 다른 곳을 더 둘러본 뒤,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에누리 요령을 익힌 뒤 거래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시장을 몇 바퀴 더 돌자 하면 도화가 폭발할 것 같았다.

- 저건 뭐예요?

- 이눔이요?

- 예.

- 돔이에요.

- 돔이요?

- 예, 줄돔

이수는 살짝 긴장했다. 줄돔이 정확히 어떤 생선인지 몰라도 무척 비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사내가 장사꾼 특유의 순발력으로 재빨리 끼어들었다.

- 두 분이 드시게?

- 아, 네.

이수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그게 꼭 사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 그런 건 얼마나 해요?

- 달아봐야 알죠. 킬로당 십만원 좀 넘는데 내 오늘 손님한테는 특별히 구만원에 헤드릴게.

이수가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그러곤 방금 전 마음을 사내에게 들켰을까 신경썼다.

- 사내가 잠시 머뭇대다 ‘잡히기는 여름에 많이 잡히는데, 맛은 겨울이 낫다’고 했다.

- 아이고, 아무렴 어때. 뭐든 맛있게 먹을 때가 제철이지. 안사도 되니까 한번 달아나보세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이수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달아보고 안 사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구매의 제스처’를 취하고 싶었다. 혹 손님 마음이 바뀔까 사내가 후다닥 뜰채를 쥐었다. 그러곤 능숙하게 줄돔 한 마리를 건져 녹색 저울 위에 올렸다.

- 어디 보자, 삼 킬로그램 조금 안 되니까…… 이십오만원 주시면 되겠네.

이수가 잠시 멈칫했다. 킬로당 구만원이라 할 땐 실감 못했는데 한 접시에 이십오만원이란 얘길 들으니 머리가 멍했다.

- 내 산낙지 두어 마리 같이 넣어드릴게.

도화는 ‘어차피 안 살 거면서’ 이수가 왜 주저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이수가 깜짝 놀랄 말을 했다.

- 주세요, 그거.

도화가 이수 팔을 잡아당기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 미쳤어?

- 그걸로 할게요.

사내가 거래를 서둘렀다.

- 댁에 가져가시게?

- 아니요, 근처에서 먹을 거예요.

사내의 움직임에 흥과 속도가 붙었다. 사내가 뜰채를 뒤집자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생선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세차게 허리를 틀었다. 비둘기색 몸통 위에 검정 줄무늬가 산뜻했다. 사내가 작업대에 생선을 누인 뒤 칼로 배를 갈랐다. 대범한 듯 조심스레 내장을 제거하고 살을 발랐다. 이수는 존경심과 두려움을 느끼며 사내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 머리랑 내장도 드려요?

- 네, 주세요.

귀한 생선이라 그런지 사내가 줄돔 껍질 하나 버리지 않고 일회용 접시에 올렸다. 이수는 자신이 지금 살짝 흥분했다는 걸 알았다. 먹는 데 이렇게 큰돈을 써보긴 처음이었다. 가슴이 쿵쥔했지만 한편으론 이까짓 게 무슨 대수인가 싶었다. 아파트도 자동차도 아닌 고작 생선 한 마리인데. 물론 이수는 알고 있었다. ‘고작 생선 한 마리’가 자신의 한 달 생활비인 적도 있다는 걸. 실은 그보다 적은 돈으로 겨울을 나고 여름을 건넌 적도 있다는 걸. 도화는 모든 걸 포기한 듯 부루퉁한 얼굴로 어느새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사내가 검은 봉지를 내밀자 이수가 낡은 오리털 점퍼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공들여 만원짜리 지폐를 세는 이수 손끝에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어렸다.

「진너편」, 김애란